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한평생은 조국수호와 선군조선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헌신의 력사

림 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한평생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애국위업을 받들어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절세의 애국자의 고결한 한생이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은 곧 수령이라는 주체의 조국관을 지니시고 혁명생애의 전 기간 우리 조국을 존엄높은 김일성조선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여 조국수호와 선군조선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조선혁명을 책임진 주인이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으신 장군님께서서는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빛내이시였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한평생은 무엇보다먼저 온갖 난관과 희생을 무릅쓰고 장장 50여성장 조국수호를 위한 선군장정을 이어오신 열렬한 애국헌신의 력사이다.

선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넓이였으며 삶의 전부였다. 선군을 떠나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색과 실천에 대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나라와 인민에 대한 최대의 사랑은 조국보위이며 최대의 애국도 조국수호이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길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도전에 견결히 맞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존엄과 위용을 떨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의 길이다.

총대가 약하면 나라가 망한다는것은 지난날 나라를 일본침략자들에게 빼앗겼던 우리 민족사의 피의 교훈이며 어제뿐아니라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력사의 철리이다.

조국해방의 총성이 높이 울리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조국을 목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투사들속에서 성장하시며 일찌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제국주의자들의 핵공갈에 굴종한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책동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땅크와 대포를 녹여 보습을 버리는 망동이 벌어지고있던 시기에 결연히 모진 고난과 시련을 각오해야 하는 선군령도의 길에 오르시여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수호를 위한 전선길에 제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결으신 선군장정의 길은 조국의 운명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무거운 사명감이 아니었다면 감히 걸을 엄두도 낼수 없는 길이였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기어이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강국으로 일떠세워야 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이 아니었다면 열백번도 더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을수도 있는 그런 힘겨운 길이였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이 길에서 순간도 멈춰설수 없으시였으며 인민들이 장군님의 건강이 넘려되어 단 하루라도 편히 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있었지만 자신께서 잠시라도 쉬면 조국의 전진이 그만큼 떠진다고 하시며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걸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선군장정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결사옹위를 생명으로 하고 수령의 명령을 맨 앞장에서 결사관철하는 선봉대, 선군혁명위업수행의 전위대로,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무적필승의 혁명장군으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도전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장정이 있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것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책동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며 생활인 주체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낼수 있었다.

세계적인 군사강국, 이것은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었던 민족사적대경사이며 우리 조국의 자주권수호와 존엄에 대한 무궁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한것으로 된다. 군사강국, 그것은 자기 조국, 자기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불태워나가는 절세의 애국자만이 이룩할수 있는 성스러운 애국위업이다. 반만년민족사에 우리 인민이 바라던 군사강국으로서의 전변은 조국의 운명을 수호하는데서 이룩한 거대한 승리로서 위대한 장군님의 열렬한 조국수호정신, 애국헌신으로 일관된 선군장정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제국주의와의 치열한 대결속에서 혁명과 건설이 진행되는 시대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사회주의조국수호와 번영의 참다운 길, 선군의 새 역사를 펼쳐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특출한 업적으로 된다.

제국주의반동들의 온갖 침해로부터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담보하는 가장 원칙적이고 정의로운 반제자주의 길, 선군장정의 길이야말로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길이며 한평생 자신의 온넋을 다 바쳐 존엄하고 험난한 선군장정의 길을 걸으시며 나라와 민족,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였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은 조국수호를 위한 참다운 애국헌신의 력사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한평생은 다음으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 선군조선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하신 고귀한 애국헌신의 력사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불굴의 애국헌신으로 선군조선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생을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헤치시면서 사회주의수호전을 이끄시는 엄혹한 속에서도 경제강국건설의 위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하여주시였다.

하루빨리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는 참다운 애국의 길은 오늘뿐아니라 래일을 담보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힘,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마련하는데 있다.

새 세기 산업혁명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경제강국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서 우리자체의 힘으로 내 나라, 내 조국땅우에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일떠세울수 있는 가장 옳

바른 지름길이다.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혁명이며 첨단돌파에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사활적인 문제로 보시고 선군으로 조국수호전을 이끄시는 것처럼 어렵고 간고한 조건에서도 온 나라에 최첨단돌파전의 열풍,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었다.

우리 식의 새 세기 산업혁명을 안아온 CNC화를 놓고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주의가 얼마나 높은 경지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번영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CNC화, 최첨단돌파전을 결심하시던 때로 말하면 우리 조국이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시기였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이 인류공동의 재부인 과학기술을 저들의 독점물로 만들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제국주의의 지배와 략탈을 면할수 없었고 튼튼한 군사력과 경제력도 마련할수 없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리익도 지켜낼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식량이 모자라 고생하는 인민들을 두고 생각이 많으시었지만 부강할 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나라에 있던 돈의 전부라고도 할수 있는 귀중한 자금을 CNC화에 돌리시었다. 이것은 번쩍거리는 남의 기계를 사오는것보다 내 나라, 내 조국의 힘을 키워 우리 조국을 세계에 당당히 내세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의지가 안아온 대용단이였고 최상의 선택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최첨단돌파전의 불길속에 새 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써 과학기술의 힘, 지식의 힘으로 비약적인 장성을 이룩해나가게 되었으며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를 일신시켜나갈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

과학기술중시를 경제강국건설의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시고 우리 식의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100%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혜에 의거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의 성공적인 발사에 이어 《광명성-2》호와 《광명성-3》호 2호기가 련이어 발사되어 주체조선의 우주과학기술과 종합적국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태양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섰다.

그리고 현대적인 중공업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이 새로 많이 건설되고 이미 있던 공장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되어 우리 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졌으며 우리 나라의 수십만정보의 토지가 사회주의면모를 갖춘 땅답게 정리되고 이르는 곳마다에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훌륭히 일떠섰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걸으신 현지도의 길우에는 적들의 총구가 도사리고있는 최전연의 고지들뿐아니라 쇠물 쏟아지는 용해장과 비바람부는 포전길, 삼복의 불별이 내리쬘이는 공장길과 석수떨어지는 지하갱막장길도 있었으며 풍랑사나운 바다길과 눈보라치는 칼벼랑길도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천만리와 더불어 태어난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 십야강행군, 야전복과 같은 시대어들은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바치신 한평생이 얼마나 피어린 강행군로정이였는가 하는것을 가슴뜨겁게 전해주고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이 있어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렬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는 력사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게 되었을뿐아니라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을 앞당길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다.

력사상 류레없는 시련과 난관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인간으로서, 혁명가로서, 정치가로서 겪을수 있는 온갖 고생을 다 겪으시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지켜주시고 억년드눌지 않을 내 나라, 내 조국의 강력한 힘을 키우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업적은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오늘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진두에는 **김일성** 민족이 낳은 또 한분의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계신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 애국주의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온 사회에 **김정일** 애국주의열풍이 차넘치게 하여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을 하루빨리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는데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야 할것이다.